

‘금타 화재’ 해결 과제 산적…현장수습도 장기화 우려

사측, 오븐 내 이물질 발화 추정
불난 2공장 철거작업 진행률 5%
생산직 근로자 재배치 결정 일러
2700명 주민 피해보상 절차 돌입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화재 원인규명과 노동자 고용 대책 등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불이 난 건물의 해체 작업률은 5%로, 구조물 손상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에 손실 규모와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기와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신고가 수천건에 이르는 만큼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2일 오전 공장 민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 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를 가열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산업용 전자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당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는 고무에 포함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고, 타이어를 생산하는 7개 공정 중 정련, 압연, 압출, 제단 등 4개 공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불이 난 정련 공장에서는 34명이 근무 중이었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자동 분사됐고, 이후에도 수동으로 한 번 더 분사됐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공장 내 화재로 인한 연기가 가득해지자 방제 센터에서는 3번의 대피 방송을 했고, 부상을 입은 직원은 척추 손상으로 인해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벽체를 잘라내는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기와 분진가루 날림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방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펌프차, 굴삭기, 물탱크차 등 장비 6대와 인원 20여명이 투입됐고, 2공장 중간 지점에 위치한 3면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2공장 철거 작업 진행률은 약 5%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화재 현장 수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타이어를 생산하는 첫 단계인 정련 공정 설비 대부분이 소실된 만큼 사측은 “공장 가동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물 철거 작업으로 공장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유급 형태로 자택에서 대기 중인 생산직 근로자들의 전보·희망퇴직 등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측은 “공장 가동 시점의 경우 현재로서는 파악



2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수습당국이 중장비를 이용해 불이 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악하기가 어렵고, 희망퇴직 등은 아직 검토된 건 없다”며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후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납품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절차는 이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접수 마감일인 오는 28일 이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3일간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인적피해를 호소한

2,700여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사 측은 23일부터 피해신고 주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보상 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한도는 5,000억원이다. 이 범위 내에서 주민 피해 보상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당초 지난 19일부터 10일간 주민 피해 접수를 받고 나서 보상 절차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불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산구에 접수된 화재 현장 인근 주민의 피해는 5,700건으로 집계됐다.

주민 피해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광산구는 금호타이어와 송정보건지소 1층에 공동 접수처를 설치했다.

최환준 기자

‘이재명 비서관 사칭’ 민주당원 검찰 송치

과거 ‘윤석열 사칭’ 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관을 사칭해 제명된 민주당 당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1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특별보를 사칭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지역 공공기관 여러 곳을 찾아가 기관 관계자들에게 국민의힘 공보특별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임명장까지 꺼내 들며 관계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칭한 신분을 이용해 권리 행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신분이나 직책을 이용하면 인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공보특별 임명장을 A씨가 위조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국민의힘 측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임명장의 진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당원인 A씨는 최근 광주지역 5개 구청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후보 비서관을 사칭하며 후보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수민 기자

광주 평동산단서 화물차 법규위반 118건 적발

광주경찰청·유관기관 합동단속

광주경찰청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단단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

·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 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

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과 유관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보수 기독교단체, 금남로서 29일 대규모 집회 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가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신애국지도자연합회 등 보수단체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주최측 신고 인원은 1,000명 규모로 집회 이후 무등빌딩~웨딩의 거리·광주천변~금남공원까지 행진 계획도 밝혔다.

앞선 지난 2월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관으로 5만여명이 참석한 윤석열 전 대

통령 탄핵 반대 기도회가 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시민과의 충돌 등 불상사에 대비해 집회 당일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후식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 대변인은 “집회 당일 내란음호 발언과 5·18평화와 왜곡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덱)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